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신앙고백 Confession	다같이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말씀 Sermon	요한복음 1:29-30 하나님의 어린 양 곽형일 목사
결단의 시간 Dedication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임종길 목사

3부: 오후 1:30 선교 후 정비를 위해 쉽니다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찬양과 경배 Worship	
말씀 Sermon	
기도 Prayer	
축복기도 Benediction	

● 교회 소식 News

- 새예배당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 단기 선교 (5.27-6.1.2024)
 - 1)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 멕시코 선교팀이 15명의 전원 복귀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복귀완료 : 곽형일, 이보연, 민경은
 - (2) 오늘 오후 6시 BWI (9명) : 강은경, 김민정, 김아인, 김자혜, 문진숙, 문현숙, 박종필, 손성빈, 정차균, 조일환
 - (3) 오늘 오후 10시 DCA (5명) : 박문기, 장금옥, 전에스티, 최성조, 허용범
 - 3) 선교팀 공항라이드를 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 (1) BWI 오후 6시 팀 - 담임목사 가정의 공항 픽업, Rockville에서 인계 - 차 3대 필요
 - (2) DCA 오후 10시 팀 - 차 2대 필요
- 담임목사 부부 출타
 - 1) 휴스턴 순복음교회의 2024 비전집회의 강사로 텍사스에 갑니다
 - 2) 일정 - 6. 3-5. 2024
 - 3) 수요 성경공부는 없습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지난주 헌금 (Last Week's Offerings)

주정헌금	960	선교 헌금	100
십일조	1191	건축 헌금	30
감사헌금	370	선교지정	450
		총액	3,351

● 금주의 은혜 노트 Take-home Message

1. 공생애 서막 (요 1:19-51)에 제시된 예수님의 정체성
 - 1)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29, 36)
 - 2)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1:33)
 - 3)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1:41, 45)
 - 4)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1:49)
 - 5) 인자

2.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3.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 쉼 그룹 나눔 주제 Questions for Cell Group Sharing

1. 파라과이 산악의 판자집과 멕시코 쓰레기 마을 파리집 중 선택해야 한다면?
2. 당신의 마음 속을 굳이 집으로 비유하라고 한다면 판자집과 파리집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3.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땅에 오셔야 하셨던 예수님의 최악의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4. 예수님처럼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당신이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5. 니말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꿈이 마음 속에 있습니까?
6.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예배 및 모임 안내 (Services and Meetings)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화-금 새벽기도 (온라인)	오전 5: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기도	오전 6: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YM, EM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토요 여성 성경공부	오전 9:00	새가족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00

● 후원선교사 (Supporting Missionaries)

Missionary	Country	Missionary	Country
고동훈/김흥희	Israel	김성화/진옥경	Dominica Republic
구스타보/안희진	Cuba	장순희	Nepal
정은희	South Sudan	성화영	Sri Lanka
김광호	NK Church	강태호	Japan
나운주	Washington DC	이흥구	California

● 멕시코 뿌에르토 베나스꼬의 쓰레기 마을



●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산 위의 판자집 vs 파리가 들끓는 쓰레기장 집



◆ 파라과이 산악 인디언 마을의 1평짜리 판자집

약 20년 전 파라과이로 첫 선교를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 1평 남짓 되는 흠바닥 판자집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의 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나무 판들 사이에 겨우 분변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다였습니다. 칸막이도 없이 그저 한적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판자들로 덮은 후,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작은 구멍만 내었습니다. 구덩이가 다 차면 구덩이를 흙으로 메우고 다른 구덩이를 파고 화장실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번 멕시코 선교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집 입구에는 파리가 득실거렸고, 집 안에는 그보다 더 많은 파리가 득실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들은 파리를 더러워하거나 쫓지 않았습니다. 더럽다는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지요.

파리는 없지만, 화장실도 따로 없고, 좁아 터진 파라과이 산악의 한 평짜리 판자집, 5평 정도 되는 건물이지만, 파리가 득실거리는 멕시코 쓰레기 마을의 파리집,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살라고 한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정함 속에 살고 있기에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더러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열린 공간에서 대소변을 해결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파라과이 인디언들이나, 파리가 득실대는 것을 더럽게 여기지 못하는 멕시코 쓰레기 마을의 주민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의 한 복판에 죄를 짊어지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을 알게 하시며,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것, 그것이 그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져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살아야 할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



생명샘교회
Living Spring Church



2024 표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spring forth
이사야 (Isaiah 43:19)

EM: Mark Lee 목사 / 장애우사역: 박경숙 전도사
Youth: Isaac & Martin Lin
제자훈련: 허용범 전도사 / 상담: 전에스티 전도사
아동부: 민경은 사모 / 유년부: 배민희 전도사
영아부: 배미자 권사 / 원로: 임종길 목사

담임: 곽형일 목사

7200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 571.839.3058
LivingSpringVirginia@gmail.com
www.LivingSpring.net